이민구의 『선위록(宣慰錄)』 연구*

한 태 문**

1. 머리말
2. 『宣慰錄』의 형성 배경
 - 1) 일본국왕사의 내방과 선위사의 파견
 - 2) 사명 완수의 자부심과 사행 경험의 과시
3. 『宣慰錄』의 서술 체제
4. 『宣慰錄』의 내용상 특징
 - 1) 선위사의 소명의식과 노정에서의 감회 토로
 - 2) 동래지역의 풍광과 민간풍속의 반영
 - 3) 경상좌수사의 사냥과 宣慰禊會의 광경 묘사
 - 4) 스승과 벗에 대한 곡진한 인정의 표출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이민구의 사행시문집인 『선위록(宣慰錄)』을 살핀 것이다.

첫째, 『선위록』의 형성 배경을 살폈다. 『선위록』은 1622년 정월 일본국왕사가 조선에 왔을 때 선위사 이민구가 약 1년 동안 사행 활동을 하면서 지은 시문을 가려 뽑아 엮은 사행시문집이다. 이민구는 선위사로서 견문한 자기 경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명을 완수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선위록』을 엮었다.

둘째, 『선위록』의 서술 체제상의 특징을 살폈다. 『선위록』은 이민구의 문집인 『東州集』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총 27제 60수의 시로 구성되었다. 일본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hantm@pusan.ac.kr)

국왕사와 주고받은 시가 없이 오로지 자작시만 수록하되, 하행길-도착지-상경길 등의 사행 노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집하였음을 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선위록』의 내용상 특징을 살폈다. 『선위록』은 선위사로서의 소명 의식과 노정에서의 감회 토로, 동래 지역의 풍광과 민간풍속의 반영, 경상좌수사의 사냥과 宣慰禩會의 광경 묘사, 스승과 벗에 대한 곡진한 인정의 표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처럼 이민구의 『선위록』은 선위사의 사행 체험을 제대로 반영한 사행시 문집으로 사행문학의 영역 확대는 물론, 통신사와 함께 조선시대 대일 사행문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학 텍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주요어: 이민구, 선위사, 선위록, 일본국왕사, 통신사

1. 머리말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사람을 통한 교류를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시대 ‘왕인’과 ‘아직기’, 조선시대의 ‘통신사’이다. 왕인과 아직기가 고대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로 대표되는 한자와 유교를 전했다면, 통신사는 외교 사절이자 일본인과의 문화교류를 염두에 두고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문학적 재능이나 기예에 능했던 이들로 구성된 대규모 문화사절이기도 했다.

특히 조선후기 통신사는 양국이 임진왜란의 상처를 딛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학·학술·예능·생활문화·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무려 260년간 평화공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에는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양국민의 지혜가 오롯이 담긴 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가 오늘날 인류가 처한 국가·민족·인종·종교 간 갈등을 해결할 지혜를 제공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¹⁾

한편, 조선에서 일본에 통신사가 파견된 것처럼 일본에서는 조선에 국왕사를 파견했다. 일본의 국왕사는 조선전기에는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와서 조선국왕을 알현하고 국서를 전달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상경하지 못하고 대신 동래에서 모든 외교 행사를 치렀다.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국왕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는 동래에 그들을 접대하고 외교 업무를 논의할 고위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이 고위 관리를 ‘宣慰使’라 불렀다. 이처럼 선위사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했던 통신사와 함께 조선시대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또 다른 한 축이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일 외교 관련 사행문학 연구에서는 주로 통신사의 문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일본국왕사를 맞이한 선위사의 문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통신사 관련 문학작품이 양국에 많이 남아 있어 양국 학자들의 관심을 유발한 데 비해, 선위사 관련 문학작품은 대체로 한국에만 남아 있고, 그마저도 많이 발굴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신사의 문학을 활발히 연구한 것처럼, 이제는 조선시대 양국 외교를 담당했던 다른 한 축인 선위사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

본 연구는 그동안 조선시대 사행문학 연구에서 선위사의 문학을 도외시했던 학계의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우선 1622년 일본 국왕사 방문 때 선위사로 활약했던 이민구의 사행록인 『宣慰錄』을 살피기로 한다.

1) 부산문화재단과 일본NPO법인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19세기 한일 간 평화 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는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태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과 현황」, 『항도부산』 36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을 참조.

2) 선위사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명나라에서 보낸 詔使와 조선의 接伴使,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와 일본 측의 接客담당자와의 창수 양상을 살핀 연구(허경진, 「통신사와 접반사의 창수 양상 비교」, 『조선통신사연구』 2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61~97쪽)와 李陞을 통해 일본국왕사에 대한 조선전기 문인들의 대응을 다룬 연구(임채명, 「조선전기 문인들의 일본국왕사 대응의 한 단면-李陞의 〈送日本僧聖津首座還國詩序〉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4집, 근역한문학회, 2006, 5~23쪽)도 있다.

2. 『宣慰錄』의 형성 배경

1) 일본국왕사의 내방과 선위사의 파견

조선의 외교정책은 중국에 대한 '사대'와 일본·유구·여진·남만에 대한 '교린'으로 대표되는 '사대교린'이었다.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한 사절단은 왕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곧 명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조천사'로,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연행사'라 불렀다. 일본에 파견한 조선 사절의 이름은 조선전기에는 '통신사·통신관·회례사·회례관·보빙사·호송사·수신사' 등으로 다양하였지만, 조선후기에는 '회답검쇄환사'로 불린 초기 3차례(1607·1617·1624) 사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신사'로 통일되었다.

상호수교의 특성상 일본도 1404년 7월 室町막부의 3대 장군 足利義滿이 승려 周棠을³⁾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친 이래 막부의 장군이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를 '일본국왕사'라고 불렀는데, 이는 足利義滿이 서계에서 자신을 '일본국왕'이라 칭하였기 때문이다. 조선도 일본이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책봉 체제에 편입된 것을 축하하고 막부 장군을 천황의 신하가 아닌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자 외교의 주체로 인정하였다.⁴⁾

이름을 사칭한 가짜 사절단도 있었지만 일본국왕사의 파견은 조선 전기에 약 70회에 이른다. 일본국왕사는 상경하여 조선국왕을 직접 만나 국서를 바쳤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국왕사의 상경은 예외적으로 規伯玄昉이 이끌던 1629년 사행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일본국왕사가 오가던 '선린 평화의 길'을 임진왜란 때 '침략의 길'로 이용한 것에 대한 조선의

3) 周棠은 실록에 4차례 언급된다. 첫째는 태종 4년(1404) 10월 24일 귀국하는 일본국왕사 周棠을 왕이 접견한 뒤 대접했다는 내용, 둘째는 태종 5년(1405) 12월 6일 다시 周棠이 일본국왕사로 왔다는 내용, 셋째는 이듬해 2월 8일 귀국하는 周棠에게 물품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며, 넷째는 세종 4년(1422) 11월 16일 일본국왕사 圭壽가 지닌 일본의 국서 속에 조선 왕이 周棠의 스승 智覺普明의 초상화를 화공에게 그리게 한 뒤 周棠이 귀국할 때 보냈다는 내용이다.

4)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1404) 7월 30일, “日本遣使來聘 且獻土物 日本國王 源道義也 日本國 防長刺史大內多多良盛見 亦獻禮物”. 조선 전기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하우봉,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경인문화사, 2014, 23~80쪽 참조.

응징이었다. 조선후기의 일본국왕사는 상경하여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는 방식 대신, 부산의 객사로 가서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殿牌에 절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⁵⁾

한편, 일본국왕사가 내방하면 조선 조정에서는 3품의 조정 관리인 宣慰使가 동래로 내려가 通詞를 대동한 채 그들을 맞이하고 보냈다.⁶⁾ 선위사는 조정의 관리 가운데 당대에 문장으로 이름난 이가 우선으로 선발되었다. 이는 1587년 玄蘇(1537~1611)가 일본국왕사로 오자 선조가 시에 능숙한 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벼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文名이 높았던 이조정랑 柳根을 선위사로 제수한 데서도 확인된다.⁷⁾ 玄蘇는 博多의 聖福寺와 京都의 東福寺 주지를 거쳐 1580년 대마도주 宗義調의 초빙으로 대마도로 건너가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인물로, 당시 중국에 조공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조선에 왔다.⁸⁾ 그가 10년 뒤 다시 사신으로 왔을 때도 선조가 그를 “왜인 가운데 문자를 알아 시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⁹⁾으로 기억할 정도로, 시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시문집으로 『仙巢稿』가 있고, 『五山詩僧傳』에도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전한다.¹⁰⁾

하지만 선위사는 1629년에 국서를 지참하지 않은 일본국왕사가 상경하는 것을 막지 못해 국체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선위사 正洪명이 파직된 뒤, ‘接慰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¹¹⁾

5) 김문식,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세창출판사, 2017, 272~274쪽.

6) 『증정교린지』 권1, 「接待日本人舊定事例」, “國王使 則遣宣慰使 率通事迎送”.

7)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1587) 10월 22일, “傳曰 接伴隣使 其任極重 況日本人能詩 酬唱之際 如或未盡 必傳笑於其國 所關非輕 宣慰使勿論職秩高下 極一代文章之士 差遣可也 吏曹正郎 柳根 除宣慰使”. 玄蘇 이전인 1510년에 일본 국왕사로 온 冊中도 선위사 金安國이 자신이 지었다며 최치원의 <題芋江驛亭>를 전송시로 내밀자, 시의 기골이 다르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대단한 감식안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신, 『清江先生鯁鱗瑣語』, 「清江先生詩話」, <金慕齋 以宣慰送日本使冊中>을 참조.

8) 『선조실록』 권14, 선조 13년(1580) 12월 21일, “日本國使玄蘇 平調信等來聘 欲因我國 通貢皇朝 而辭語悖逆 朝廷却之”.

9) 『선조실록』 권24, 선조 23년(1590) 1월 17일, “傳曰…況玄蘇倭人中頗通文字 而喜作詩 又必能文”.

10) 上村觀光 編, 『五山詩僧傳』, 東京民友社, 1912.

11) 『증정교린지』 권3, 「接倭出使官」, “至仁祖七年己巳 鄭弘溟不能拒塞倭使 引至入京 虧損國體 拿罷 以李行遠代之 改宣慰使爲接慰官”. 접위관에 대해서는 양홍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

2) 사명 완수의 자부심과 사행 경험의 과시

『선위록』을 쓴 이민구는 본관이 쑤주로 자는 子時이고 호는 東州·觀海·觀海道人이다. 1589년(선조 22) 1월 14일에 이조판서를 지낸 李暉光과 金大涉의 딸과의 사이에서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민구의 집안은 병조판서를 지낸 할아버지 李希儉으로부터 손자인 이민구에 이르기까지 三代가 三司를 역임하였다고 하여, 또는 이민구가 과거에 급제한 이듬해에 아비 이수광은 대사헌, 큰아들 이성구는 사간원 헌납, 작은아들 이민구는 홍문관 부수찬의 직책에 있었다고 하여 ‘一門三司’라 불렸을 정도로 명망가이다.¹²⁾ 또, 아비 이수광, 형 이성구와 함께 시문으로 이름을 떨쳐 ‘蘇氏三父子’에 비견되기도 하고, 정약용은 그를 ‘詩雄’으로 칭하기도 했다.¹³⁾ 이민구도 형과 과거에 같이 급제하여 가문을 빛낸 것을 “꽃다운 田眞 삼형제처럼 / 붉은 계수가 지나 하나씩 뽑았다네.”라며¹⁴⁾ 자랑하기도 하였다.

이민구는 21세(1609)에 사마시 수석, 24세(1612)에 증광문과 장원급제 등으로 확인된 탁월한 文才 덕분에 조선 조정에서는 1621년 2월 17일, 그를 일본국 왕사를 맞이하는 선위사로 발탁했다. 친한 벗이었던 李植은 평소의 재주와 명망으로 선위사로 추천되었으니 섬 오랑캐 너도나도 깃발 아래 절을 할 것이라며 그의 발탁을 축하했다.¹⁵⁾ 그는 윤 2월 18일에 체직되어 趙翼이 새로운 선위사로 임명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망궤례에 지각한 일로 사헌부가 파직을 요청했을 때도 선위사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이 거부한 것으로 보아¹⁶⁾ 11월 14일 이전에 선위사로 재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는 『선위록』이 산출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의 파견과 역할(『부대사학』 24집, 부산대학교사학회, 2000)과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을 참조.

12) 『明德報』 4, 全州李氏 敬寧君派 宗會報, 1998. 김영주, 「동주 이민구의 문학론 연구」, 『동방한문학』 20집, 동방한문학회, 2001, 214쪽에서 재인용.

13) 이소환, 『玄洲集』 권3, 「謾吟錄」, 〈挽分沙李政丞聖求〉, “琮璜別派擅纓簪 世比蘇家父子三”.; 정약용, 『茶山詩文集』 권2, 「詩」, 〈古詩二十四首〉, “東州號詩雄 碑銘尤可鐫”.

14) 이민구, 『東州集 詩集』 권7, 「鐵城錄七」, 〈述懷一百韻〉, “花秀三荊紫 枝抽一桂丹”.

15) 이 식, 『澤堂先生集』 권2, 시, 〈送宣慰使李子時敏求〉, “卉服紛紛拜漢旌 才望素推宣慰使”.

16) 『광해군일기』 권55, 광해군 13년(1621) 2월 17일, “以李敏求爲宣慰使”.; 윤 2월 18일, “宣慰使李敏求遞 以趙翼代之”.; 11월 14일, “李敏求宣慰使也 不可罷職察之”.

天啓 임술년(1622, 광해군 14) 정월에 일본 사신 南堂과 승려 玄方이 이르렀다. 내가 선위사의 임무를 맡아 1621년 겨울에 먼저 부산으로 가서 그들을 맞이해 노고를 위로하고, 9월에 비로소 돌아왔다. 당시 지은 시문이 300편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기록한다.¹⁷⁾

1621년 선위사로 임명된 이민구가 1622년 정월에 일본국왕사 南堂과 승려 玄方을 부산에서 만나 그들의 노고를 위로한 뒤 9월에 돌아올 때까지 지은 시문 300편 중 가려 뽑아 엮은 것이 『선위록』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광해군일기』에는 일본국왕사가 1월 22일 부산에 도착하여 9월 9일 회답서계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온다.¹⁸⁾ 1622년의 일본국왕사는 1617년 조선이 제2차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한 데 대한 ‘報聘’의 목적을 띤 사행이었다.¹⁹⁾ 『선위록』에도 부산으로 내려가며 지은 〈客行〉에 ‘새벽 관문의 산에는 눈보라가 거세고(晨關山雪暗)’라는 시구가 등장하고, 사명을 마치고 귀로에 들러 지은 〈游通度寺〉에도 ‘가을바람은 지는 앞에 맴돌고(秋風只繞將凋葉)’라는 시구가 있어 인용문의 내용과 시기가 일치한다.

이민구는 선위사로서 견문한 자신의 경험을 널리 알리고, 사명을 완수한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선위록』을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민구의 자부심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사흘 만에 五道都元帥 한준겸의 종사관으로 임명된 후 지은 시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선위록』의 마지막 수록한 시에서 “파도 치는 동해에서 꿈꾸었는데 / 눈비 오는 북문에서 술 마시겠네”라며²⁰⁾ 선위사의 사명을 마치자마자 바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17) 이민구, 『東州集 前集』 권1, 시, 『宣慰錄』, 〈宣慰錄小序〉, “天啓壬戌歲正月 日本使南堂僧玄方 至 余膺宣慰之任 以前歲冬 先往釜山迎勞 至九月始還 所著詩文三百篇 今記若干于左”. 이하 『宣慰錄』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宣慰錄』, 시제, 원문’ 등으로 간략히 적기로 한다.

18) 『광해군일기』 권59, 광해군 14년(1622) 1월 22일, “日本遣僧人玄方來聘”. 9월 9일, “日本使玄方受回書契 還去”.

19) 홍성덕, 「조선후기 일본국왕사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집, 한일관계사학회, 1996, 99쪽. 그런데 『邊例集要』 권1, 「別差倭」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사신 南堂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上官 玄方, 副官 平智順 등 155명이 德川秀忠의 서계를 지참하고 온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 『宣慰錄』, 〈還朝三日旋被韓元帥幕辟〉, “波濤東海夢 雨雪北門杯 只爲頻年役 容華暗裏催”.

3. 「宣慰錄」의 서술 체제

「선위록」은 이민구의 개인문집인 『東州集』(1639)의 권1, ‘시’에 「從軍錄」·「嶺南錄」·「嘉林錄」·「卯酉錄」·「東游錄」·「關東錄」·「關西錄」 등과 함께 맨 앞에 수록되어 있다. 『동주집』은 前集 8권, 시집 24권, 문집 10권, 별집 1권 등 총 43권 13책으로 구성된 것으로²¹⁾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시집이 문집보다 3배 정도 많은 분량으로, 수록된 시는 별집까지 합쳐 약 1,700제 2,400수에 이른다. 본 연구의 텍스트는 저자가 직접 편집한 원고를 숙종 연간에 함흥에서 총 900판의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인 규장각 소장본으로, 半葉은 10행 20자, 半郭의 크기는 21×15.7cm이다.

「선위록」은 아래와 같이 「小序」 외에 총 27제 60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No	제 목	No	제 목
1	隋城醉吟別舅氏及從弟	15	漁浦
2	客行	16	秋思
3	免遷	17	登釜山故城
4	安東別府伯	18	宣慰襖軸
5	新寧	19	秋日送琴昌原解攝印還任
6	河陽逢金博士	20	游通度寺
7	次方伯韻	21	塔殿
8	酬許若虛巨濟謫所	22	聞琴
9	約嚴節度內翰兄弟游仙洞	23	琴娘
10	次嚴內翰韻	24	雙碧軒
11	水軍節度校獵行	25	泝黃山江泊三郎浦
12	東萊雜詠	26	宿鄭玄谷曉過大灘
13	食蝦蟆十絕	27	還朝三日旋被韓元帥幕辟
14	沈相國喜壽挽詞五十韻	계	27제 60수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총 43권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형식은 5언율시(5제 8수), 5언고시(2제 2수), 7언절구(4제 13수), 7언율시(14제 35수), 7언고시(1제 1수), 輓詞 1편 등으로 보통의 사행시와 마찬가지로 7언율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선위록』은 일기체 사행록이 아니라 시로 된 사행록인 만큼 정확한 체류 일자나 날씨, 장소 등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사행 노정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시제를 통해 짐작할 수는 있다. 먼저 서울을 떠나 동래(부산)로 향하는 하행길은 외삼촌 金獲과 외사촌 동생 金鼎之와의 이별을 읊은 〈隋城醉吟別舅氏及從弟〉에서 보이듯, 1621년 12월 ‘隋城’(경기도 수원)에서 시작된다. 이어 험하고 좁은 길로 유명한 문경새재를 지나며 읊은 〈兔遷〉, 새해를 맞아 눈 그친 뒤 안동부사가 베푸는 전별연의 모습과 흥을 그린 〈安東別府伯〉, 신녕 객사에 머물며 새벽이 빛어내는 풍광을 읊은 〈新寧〉, 河陽(경북 경산)에서 오랜 벼를 만났지만 사행길이 바빠 서둘러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그린 〈河陽逢金博士〉 등에서 끝난다.

사행의 최종 목적지인 동래에서는 거제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許寮이 보내온 시에 답한 〈酬許若虛巨濟謫所〉, 수군절도사 엄황과 한림학사 엄성 두 형제와 선동에서 노닐 것을 약속한 〈約嚴節度內翰兄弟游仙洞〉을 비롯한 시들이 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상경할 때 양산에서 읊은 〈游通度寺〉·〈雙碧軒〉, 삼랑진에서 읊은 〈泝黃山江泊三郎浦〉, 대탄(경기도 양주)에서 읊은 〈宿鄭玄谷曉過大灘〉 등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선위사 이민구의 사행 노정도 조선후기 통신사의 노정처럼 내려갈 때는 경상좌도를 이용하고, 올라올 때는 경상우도를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그런데 보통의 통신사 사행록과 달리 『선위록』에는 일본국왕사와 주고받은 시문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宣慰錄小序〉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의 시만을 가려 수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일본국왕사와의 교류 흔적은 『선위록』이 아닌 『嶺南錄』의 〈寄日本僧玄方〉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1624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동래에 온 이민구가 갑자통신사(1624) 편으로 玄方에게 부친 것이다. 동래에서 중앙절을 맞아 홀로 술잔을 대하니

22) 『통문관지』 권6, 「交隣」, 〈先文式〉, “慶尙道有左右道 去由左道 來由右道”.

지난 선위사행 때 玄方과 나누던 이야기가 사무치게 그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³⁾

4. 『宣慰錄』의 내용상 특징

1) 선위사의 소명의식과 노정에서의 감회 토로

여행은 건문을 넓힐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근대적 교통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서 장거리 여행은 그 자체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오랜 기간 생소한 지형과 풍속에 시달려야 하는 외국 사행에 빗댈 수는 없지만, 국내 사행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양에서 태어나 근교에도 나가본 적이 없던 이민구도 벼슬길에 들어서야 그나마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수 있었다.²⁴⁾ 그런 그에게 무려 20일 이상이 걸리는 서울과 동래까지의 사행길은 기대와 부담이 교차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지금 내가 남으로 가니 때는 이미 음력 사월	今我南行月旣陽
응달진 갈림길에는 서리와 눈이 뽁뽁 얼었네	陰衢霜雪凍嚴蒙
(중략)	
그립겠지 외삼촌과 사촌동생	懷哉舅氏與從弟
이로부터 갈림길 아득히 멀기만 하리	自此渺然岐路長

『선위록』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隋城醉吟別舅氏及從弟〉의 내용이다. 사명을 받아 궁궐을 나서고 보니 응달마다 서리와 눈이 뽁뽁 얼어붙은 한겨울이다. 평소 각별했던 외삼촌 부자와²⁵⁾ 몇 잔 술로 애써 시름을 달래보지만, 그

23) 이민구, 『東州集 前集』 권3, 「嶺南錄」, 〈寄日本僧玄方〉, “白麓玄談中夜夢 花宮禪梵隔年思 清樽獨對相逢地 佳節還驚惜別時”.

24)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4, 「東州山人說」, “長于漢都 未嘗出近郊 入仕後以朝命 遍歷國之四封”.

25) 이민구는 외삼촌 金獲에 대해서는 〈舅氏尙衣院正金沙金公墓碣銘〉(『東州集 文集』 권10, 「墓碣銘」)을, 외종제 金鼎之에 대해서는 〈次表弟金鼎之寄詩韻〉(『東州集 詩集』 권2, 「鐵城錄二」)을 남기고 있다. 『芝峯集 附錄』 권2, 「祭文」에는 이수광의 죽음을 애도한 김확과 김정지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김확은 이수광을 스승처럼 공경하고 이수광은 아우처럼 자

마저도 이별해야 할 상황이 되고 보니 앞으로 마주할 사행길이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이어진 시 〈客行〉에서는 매번 입으로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와 〈歸田園居〉를 외지만, 어느새 〈劍閣銘〉을 자주 쓰고 있는 자신을 마주한다.²⁶⁾ 〈검각명〉은 西晉의 張載가 촉군태수로 부임하는 아비를 따라갔다가 험준한 산세를 보고 지었다는 시이다. 항상 은퇴를 꿈꾸지만 현실에선 왕명을 수행하는 신하의 소임을 저버릴 수 없다는 소명의식을 드러낸다.

깊은 골짜기 언 서리는 차갑게 서걱대고	幽壑冰霜寒淅淅
우거진 숲은 구름안개 덮여 낮에도 어둑어둑	喬林煙靄晝冥冥
평생 험한 일 겪고 이제는 늙어가지만	平生歷險今垂老
다시 험한 길 향해 마부를 꾸짖네	更向危途叱馭經

고개가 험준해 새들만이 넘나들 수 있다는 문경새재를 넘으며 읊은 〈兔遷〉의 후반부이다. 이민구는 전반부에서 험준한 산에 길을 낸 사람들을 ‘蜀王의 다섯 장사(五丁)’에 빗대며 찬탄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비록 새재가 언 서리로 서걱대고 숲 안개에 싸여 낮에도 어둑지만 漢元帝 때 王尊이 익주자사로 부임하면서 험하기로 소문난 邛邛山 九折坂에 이르러 오히려 마부를 재촉한 고사를 끌고와²⁷⁾ 왕명을 빨리 수행하고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어 〈安東別府伯〉에서 안동군수와 술잔을 나누며 타향에서 맞는 세모의 아쉬움을 노래하고, 〈新寧〉에서는 울창한 대숲, 계곡의 아지랑이, 벽화를 그려내는 듯한 구름, 창에 글씨를 쓰듯 깨끗한 강 등 신령에서의 새해맞이 소감을 읊는다. 사행의 목적인 동래에 머물면서 읊은 〈東萊雜詠二十首〉에서는 조정과 가족의 소식이 끊긴 상태에서 외로움과 향수에 젖다가도 “종소리 맞춰 새벽 조회에 들어가고 싶다(猶趁鍾聲入曉班)”거나, “손수 부상을 꺾어 취해 볼까나(手折扶桑倚醉看)”라고 하여 선위사로서의 충군의식과 소명의식을 드러낸다.

신을 대해 준 것이 50년(敬若嚴師 視如同氣者 終始五十年矣)임을 밝히고 있고, 김정지는 이 수광을 스승처럼 모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夙宵函丈 親承警欬)고 적고 있다.

26) 『宣慰錄』, 〈客行〉, “每歎歸田賦 頻題劍閣銘”.

27) 『漢書』 권76, 「王尊傳」, “及尊為刺史 至其阪問吏曰 此非王陽所畏道邪 吏對曰是 尊叱其馭曰 驅之 王陽為孝子 王尊為忠臣”.

신선경을 한 번 노닐었다 해도 도로 나그네	眞境一游還是客
명산에 오래 머물러야 비로소 신선이라 하는데	名山長往始稱仙
모를레라 관리는 무슨 일 있기에	不知簪紱關何事
선방에서 열흘도 머물러 하지 않는지	未辦禪房十日眠

상경길에 비 내리는 양산의 통도사에 들러 지은 <游通度寺> 2수 가운데 첫째 수의 후반부이다. 사명을 무사히 마친 흥가분함이 시제에 ‘游’가 들어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선이 사는 곳에 마냥 실 형편은 되지 못한다. 임금께 한시바삐 복명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에서는 주지 승과 만나 담소하면서 먼 훗날 시간이 나면 그에게 眞如를 묻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는 이어진 시 <塔殿>에서 “이 산 근처에 살아 도에 들어가려 기약했네 / 하물며 지둔 같은 고승을 만나 선심을 함께 했으니(住近茲山期入道 況逢支遁共禪心)”라는 내용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통도사 유람을 끝낸 이민구는 양산과 삼랑진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여유를 즐긴다. <聞琴>에서는 안개비가 내리는 대숲을 앞에 두고 칠현금을 타는 기생의 모습을 그리고, <琴娘>에서는 기생의 거문고 연주를 듣고 초나라 회왕과 무산신녀의 고사를 떠올린다. 또 <雙碧軒>에서는 양산이 자랑하는 쌍벽루에서 바라본 경관을, <沂黃山江泊三郎浦>에서는 100리 길 황산강을 거슬러 정박한 삼랑포의 경관과 정취를 그렸다.

달빛 타고 외로운 길 가노라니	乘月發孤征
배를 치는 여울 소리 어둠 속에 울리는데	激舟湍暗鳴
숲속 경치 짙은 안개 속에서 펼쳐지고	林光開杳靄
물기운은 투명하게 떠오르네	水氣泛虛明
골짜기 도니 온갖 봉우리 빨리 지나가고	峽轉萬峯疾
모래 차가우니 기러기 떼 놀라는데	沙寒群雁驚
타향에서 해를 넘긴 눈에	異鄉經歲眼
백 리 앞 도성이 보이네	百里見神京

서울에 도착하기 전 『선위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인 <宿鄭玄谷曉過大

灘)이다. 객사가 아닌 鄭百昌의 집에서 자고 새벽에 배 타고 대탄을 건너면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민구는 아버지 이수광이 정백창의 아버지 정효성과 교분이 깊어 정백창과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우애가 두터웠던 사이였다. 당시 정백창은 마침 폐모론이 일어나자 대탄에 물러나 살고 있었다.²⁸⁾ 대탄은 오늘날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으로 수심과 강우량이 깊었던 곳이다. 전반부에서는 달빛을 받아 강을 건너며 마주하는 풍경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타향에서 해를 넘기고 드디어 마치 신기루처럼 도성을 눈앞에 둔 기쁜 심정을 읊고 있다.

2) 동래지역의 풍광과 민간풍속의 반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한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지역의 풍토에 젖어 들게 마련이다.²⁹⁾ 이는 동래에서 거의 1년 간 머물렀던 이민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는 『선위록』에 동래의 풍광과 풍속을 담았다. 풍광을 담은 대표적인 시로 <漁浦>·<登釜山故城>·<東萊雜詠二十首> 등이 있다. <漁浦>는 난간에 서서 부산포구를 바라본 풍광을, <登釜山故城>은 해 저물 때 옛 부산성에 올라 본 풍광과 감흥을 담았다.

타향의 기후 아득히 알기 어려우니	殊方物候杳難窮
아침저녁 흐림과 맑음 갑자기 달라지네	早晚陰晴忽不同
신기루는 사라져 바다의 비가 되고	蜃氣消爲滄海雨
큰 파도 몰아쳐서 회오리바람 일어나네	鯨濤鼓作大鵬風
소반의 물고기 거문고 기러기발 아침 저자에 나오고	盤腥玉柱來朝市
잘게 회치는 은칼 밤 되어서야 통에 떨어지네	鱠細銀刀落夜筒
보고 들어 점점 타향 일에 익숙하니	耳目漸隨鄉事慣
이제부터 응당 남쪽 사람 배워야겠네	也應從此學南公

28)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10, 「墓碣銘」, <京畿觀察使玄谷鄭公墓碣銘并序>, “自其考同樞公於吾先君文簡公交誼至深 兩家子分好猶天倫云”. 정백창은 자 德餘, 호 玄谷으로 인조의 장인인 한준겸의 사위이다. 선위사의 소임을 마친 이민구가 사흘 만에 다시 한준겸의 종사관이 되어 북쪽 변방으로 가게 된 것은 아버지 이수광-한준겸, 이민구-정백창의 친분이 작용한 듯하다.

29) 선위사·접위관의 동래부에서의 생활은 양홍숙의 앞의 논문, 91~99쪽을 참조.

“당시 그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³⁰⁾고 평가되는 〈東萊雜詠二十首〉 가운데 15번째 시이다. 전반부에서는 바다에 맞닿아 파도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예측할 수 없는 부산포구의 기후와 풍광을 그리고 있다. 이민구는 1615년에 순찰사 權盼의 보좌관으로 동래에 파견되어 항구를 보수한 적도 있었지만, 내륙 생활에 익숙한 그에게 바다는 여전히 두려움 그 자체였다. 앞선 시에서도 그는 부산포구를 마주한 뒤 대숲이 깊어 산의 귀신도 피해오고, 봄 구름에 물빛조차 검어 해신도 지나갈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남방의 交趾國을 정벌한 馬援의 고사를 끌고 와 독한 기운에 하늘 나는 솔개도 떨어진다며 부산포의 기후를 두려워했다.³¹⁾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부산포 지역민의 삶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아침마다 열리는 시장에는 쟁반 가득 얹혀진 고기는 물론, 妓房과 유흥이 발달한 지역답게 거문고를 받치는 옥으로 만든 기러기발도 매물로 나와 있다. 게다가 어부의 회칼이 밤이 되어서야 제 역할을 끝내고 통에 들어올 정도로 어시장의 풍경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친다. 생소하게 느껴지던 타향의 풍광과 삶이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자신도 걸도는 객지인이 아니라 자연스레 지역의 삶에 녹아들어야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다음의 〈食蝦蟆十絶〉은 그 변화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현된 대표적인 시이다.

복통이 시골 사내의 뱃속을 헤집는데	河魚頗攪野夫腸
개구리 요리는 의원의 새로운 처방이라네	田蛤新依主簿方
연못가 떠들썩했던 울음소리 이미 줄었으니	已減十分池上聒
밤중에 다급히 세 번 깰 걱정이 없네	不愁三起夜中忙

이는 이민구가 개구리 요리를 먹고 읊은 칠언절구의 〈食蝦蟆十絶〉 10수 중 첫째 수이다. 개구리 요리는 부제에 적힌 것처럼 이민구가 더위를 먹어 설사하자 동래부 의원 金主簿가 처방하여 바친 것이다.³²⁾ 시에서 알 수 있듯

30) 정만호, 「동주집 해제」, 『동주집1』, 도서출판 문진, 2015, 34쪽.

31) 『宣慰錄』, 〈東萊雜詠二十首〉, “夜月竹深山鬼避 春雲水黑海神過”(8째 수), “邊城瘴氣鳶應貼”(11째 수).

32) 『宣慰錄』, 〈食蝦蟆十絶〉, “方暑暴下有金主簿者治蝦蟆見餉 謂能已泄”.

이민구는 처음 개구리 요리를 마주하고는 덕분에 연못의 개구리가 줄어들어 자다가 깰 필요가 없다며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개구리 요리를 맛본 뒤에는 호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곧 蠶氏가 씨 없는 국화를 태운 재를 뿌려 개구리를 예방했다는 내용을 담은 『周禮』, 닭과 돼지만을 귀하게 여긴 『孟子』의 내용을 비웃는다.³³⁾ 이어 “입에 맞아 이제야 맛있음을 알겠다(適口今知美味存)”라고 하며 그 맛을 찬양하고, “두 다리를 잘라 들개로 볶고 향긋한 해초를 더하는(蹩蹩纔分兩股長 青蘇熬點海椒芳)” 개구리 요리법까지 자세히 소개한다. 나아가 남북조 시대의 의학자이자 유명한 요리사였던 虞棕이 “이 요리법을 익혔다면 더욱 호걸이 되었을 것(着此異方更益豪)”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청의 주방에서 나오는 사슴고기와 물고기회도 더 이상 맛이 없다며 너스레를 떠난다.

처음 맛본 개구리 요리에 대해 최고의 품평을 쏟아낸 그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요리를 발견한 자신의 자부심을 다음과 같이 읊어낸다.

어촌에서는 어채도 푸성귀라 부르지만	海邦鮭錯亦稱蔬
진흙탕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네	謾道泥塗不任漁
훗날 상쾌한 맛 풍속으로 전하리니	風俗他年傳爽味
모름지기 선위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시게	須知宣慰使權輿

동래부의 개구리 요리가 다른 아닌 선위사인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이 바친 개구리 요리는 이민구가 스스로 ‘새로운 처방’이라 했으니, 당시 동래부에 전해오는 민간요법을³⁴⁾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명색이 왕명을 받은 선위사이니 김주부도 분명 처음에는 제대로 된 탕약을 제공했겠지만, 차도가 없자 새롭게 처방하여 바친 것이 개구리 요리였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본초강목』에 이질과 설사,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날 때 삶거나 구워 먹으면 묘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된 동물이다.³⁵⁾

33) 『周禮』, 「秋官 司寇下 蠶氏」, “蠶氏掌去蠶黽 焚牡鞠 以灰洒之則死”, “其不開花者牡菊 蠶氏焚牡菊禁蛙”.; 『孟子』, 「梁惠王 上」,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34) ‘민간요법’은 약물·呪物·금기 외에 물리적·정신적 수단 가운데 오랫동안 민간에서 전승되어온 의료 기술과 지식, 사유, 관행 및 실천 양상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경남 산청에서도 경칩이 지난 뒤 공복 상태의 개구리가 가장 깨끗하다고 하여 약으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³⁶⁾

이민구는 이 시를 통해 17세기 당시 동래에서 널리 행해진 ‘더위를 먹고 설사를 할 경우’의 민간요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작 동래 지역의 옛 문헌이나 오늘날 부산 지역에서 채록된 ‘더위를 먹거나 설사할 때’ 치료하는 민간요법에는 개구리가 등장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³⁷⁾, 귀중한 지역 민속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3) 경상좌수사의 사냥과 宣慰禊會의 광경 묘사

이민구의 『선위록』에는 보통의 일본 관련 사행록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경상좌수사)의 사냥과 선위사의 전별잔치 모임인 宣慰禊會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³⁸⁾

이른 새벽 바닷가 수루에 구름안개 걷히자	海戍平明雲霧歇
바다엔 함선의 북 치는 소리 조수 타고 일어나니	海艦伐鼓乘潮發
벌려 선 장교와 용사들 모두 하나 되어	列校健兒俱結束
해 뜨기 전에 출발하자 약속했었네	去會軍期先出日

35) 『本草綱目』, 「雜病篇」 권11, 小兒, 單方, 蛙, “赤白痢及泄瀉煩熱 或煮或燒食之 妙”. 『鄉藥集成方』, 권49, 蟲獸傷門, 犬咬, “蝦蟆乾者 一箇 斑貓 二十一箇 去頭翅足”.

36) 박경용, 「산청(山淸)지역 민간요법의 실재와 전승양상-의료생활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8호, 실천민속학회, 2011, 230쪽.

37) 부산 지역에서는 더위를 먹었을 때 썩 삶은 물이나 콩국, 하룻밤 재워 둔 수박물, 나락이 슬, 첫 눈, 흰죽을 먹거나, 대추잎 삶은 물로 목욕하면 낫는다고 한다. 또 설사가 날 때는 부추를 장에 절여 밥과 비벼 먹거나, 송홧가루, 달걀노른자, 썩즙, 뿔은 감 등을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 지역의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99·112쪽.;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상동, 1994, 150쪽.; 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62~63쪽을 참조.

38) 경상좌수사와 선위사의 접대에 대해서는 당시 東萊府 東下面(오늘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 해운대를 찾은 관리들을 접대한 내용을 담은 「裁松更付下端節目」(1797) 등의 고문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순찰사·통신사는 陸四洞(裁松洞·右洞·中洞·左洞)이 협력하여 접대를 맡고, 접위관은(선위사)은 陸四洞이 윤번으로 돌아가며 맡으며, 좌수사는 오직 海洞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경주, 『해운대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 古文書』, 해운대구청, 1994, 84~85쪽.

(중략)

달 뜨자 잔치하러 고기 구울 불 피우니	騰輪飛饗爨火起
관리와 장군 용맹한 군사들 함께 기뻐하네	班爵中軍猛士喜
늠름한 위엄은 멀리 왜놈들도 두려워하니	稜威遠懾黑齒群
모두 장군의 명성이 실로 아름답다 말하네	共道將軍聲實美

이는 이민구가 경상좌수사 嚴愷(1580~1653)의 사냥을 보고 느낀 바를 칠언시로 읊은 〈水軍節度校獵行〉의 전반부이다. 이른 새벽, 장병이 함께 모여 함선의 북소리와 함께 사냥이 시작된다. 성대하게 차려입은 장병들은 장군의 호령과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넓은 들을 에워싸고 그물을 펼치되, 부딪쳐 죽은 노루나 사슴은 거두지 않고 뛰고 달리는 멧돼지·들소만을 사냥한다. 마침내 좌수사가 사냥한 것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 장병들의 사기는 높아지고 왜놈들은 더욱 두려움에 떠다며 절도사의 용맹과 위엄을 찬양한다.

봄과 여름 바뀔 때의 사냥이	蒐苗政成春夏交
어찌 그대 부역을 풍성하게 하려는 뜻이라	茲意豈欲肥君庖
(중략)	
원하는 건 장군이 짐승 쫓는 재주로	願得將軍逐獸技
오랑캐 다 잡아 사막 조용히 만들었으면	獵盡天驕靜沙漠

후반부에서는 절도사의 사냥이 결코 자신의 부역에 고기를 채우고자 함이 아님을 밝히고, 그가 짐승을 몰아내는 재주로 오랑캐를 다 잡아 사막을 조용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수군절도사는 조선시대에 각 도의 수군을 지휘하기 위해 두었던 정3품 외관직 무관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좌·우수영이 있었다. 특히 동래에 있던 경상좌수영은 1895년 廢營될 때까지 무려 243년간 동남해안 대외 전략 요충지를 방어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했다.³⁹⁾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를 위해 국가에서 베푸는 마지막 전별연이 경상좌수사에 의해 개최된 것도 그런 의미를 지닌다.

39) 송혜영·서치상, 「경상좌수영 관아의 배치구성 변화과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1권 7호, 2015, 101쪽.

이민구는 선위사로 동래에 머물 때 엄성·엄황 형제와 자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 외에도 동래의 선동에서 같이 노닐기로 약속한 뒤 기대에 들뜬 마음을 담은 〈約嚴節度內翰兄弟游仙洞〉(7월 1수)과 엄성의 시에 차운한 〈次嚴內翰韻〉(5월 2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민구는 이들 형제와 동향 출신으로, 형인 엄성과는 동방 급제한 사이였다. 이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은 이민구가 선위사로 동래에 있던 1년 동안이었다.⁴⁰⁾ 동생 엄황이 수군 절도사였던 데다, 형인 엄성도 1613년 인목대비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반대 상소를 올려 파직된 후 양산에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의 우정은 1624년 경상도관찰사가 된 이민구가 엄황과 함께 영가대를 보수하고⁴¹⁾ 그가 두 형제의 묘갈명을 지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²⁾

또한 『선위록』에는 선위사를 위한 전별잔치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다. 일본과 관련된 사행록에 통신사를 위한 전별연은 자주 등장하지만, 선위사를 위한 잔치를 묘사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조선전기에 李荇(1478~1534)이 남긴 〈宣慰使禊會圖〉가 보이지만, 이마저 선위사 본인이 아닌 참석자의 신분이다.⁴³⁾ 그런데 이민구는 〈宣慰使禊軸十二韻〉에서 선위사인 자신이 중심이 된 잔치 풍경을 그려낸다. 禊軸은 사대부들이 禊를 만들고 참여한 사실을 기념하여 각자 하나씩 지닐 수 있게 세로로 걸도록 제작한 걸개그림이다.⁴⁴⁾ 이어진

40)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10, 「墓碣銘」, 〈弘文館應教嚴公墓碣銘并序〉, “公之落南也 余奉使海上 同處一年 益相習莫逆”.

41) 1613년 순찰사 권반은 창원별장 全三達과 함안군수 엄황의 도움을 받아 전함을 계류할 목적으로 땅을 파 호수를 만든 뒤 쌓인 흙언덕 위에 대를 만들었다. 권반은 이후 1615년에도 동래에 들러 항구를 보수했는데, 이때 이민구가 보좌했다. 이민구는 1624년에 경상도관찰사가 된 후 침절제사 전삼달, 좌도수군절도사 엄황과 함께 힘을 모아 대대적인 보수를 한 뒤 권반의 본관인 안동의 옛 이름 ‘영가’를 따서 ‘永嘉臺’라 이름을 붙였다. 영가대에 대해서는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3, 「記」, 〈永嘉臺記〉; 한태문, 「조선후기 대일 사행문학의 실증적 연구-부산 영가대 해신제와 제문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1집, 동양한문학회, 1997, 555~586쪽을 참조.

42)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10, 「墓碣銘」, 〈水軍節度使嚴公墓碣銘并序〉·〈弘文館應教嚴公墓碣銘并序〉.

43) 이행, 『容齋集』 권3, 칠언율시, 〈宣慰使契會圖〉. 이행은 이밖에 〈驄馬契會圖〉·〈都摠府契會圖〉(2편)·〈部將契會圖〉·〈通禮院契軸〉·〈漢城府郎官契會圖〉·〈題禮曹郎契軸〉·〈司諫院契會圖〉·〈工曹郎官契會圖〉·〈霜臺契會圖〉(2편)·〈銀臺契會圖〉·〈軍籍廳契會圖〉·〈戶曹郎官契會圖〉 등 계획도를 소재로 많은 시를 남겼다.

시가 〈秋日送琴昌原解攝印還任〉·〈游通度寺〉임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잔치는 부산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조정으로 돌아가는 이민구를 위한 송별잔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는 당시의 광경을 그린 그림을 보고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나라가 일본과 화친의 이로움 누리려	國享和戎利
조정에서 탁월한 인재 뽑았다고 말이 많은데	朝多說越才
어찌할꼬 길에 나서 보니	如何臨道路
문득 둔한 말에 이 멩에를 씌웠구나	忽此駕駑駘
〈출사표〉에 장구한 계책 남아 있고	漢表存長算
『중용』은 박하게 받는 걸 받들었네	周經尙薄來

이민구는 첫머리에서 조정이 자신을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선위사로 선발했지만, 사실은 노둔한 말에 멩에를 씌운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이어 제갈량의 〈출사표〉를 들어 임금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임금의 영명함을 손상할까 걱정한다. 나아가 보내는 예물은 후하게 하고 받는 예물을 가볍게 하는 것이 제후를 보듬는 것이라는 『중용』의 글을 끌고 와 교린의 방책을 되새긴다.⁴⁵⁾ 선위사로서 자신의 직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청해관에서 서늘한 바람 맞이하고	迎涼淸海館
물운대에서 해를 바라보며	望日沒雲臺
높이 올라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곳 더듬다보니	登討探奇祕
떠도는 사이 근원까지 다 거슬러 올라왔네	浮游極溯洄
그럭저럭 정처없이 떠돌다	居然隨泛梗
앉고서야 달이 지난 줄을 깨닫네	坐覺闕吹灰
옥빛 이슬에 푸른 오동 시들고	玉露靑梧病
가을바람에 흰 줄풀 꺾이니	金風白蔣摧
도리어 화가의 손을 빌려	還憑虎頭手

44) 이성미·김정희, 『한국 회화사 용어집』, 다홍미디어, 2015, 18쪽.

45) 『古文眞寶 後集』 권1, 〈出師表〉, “受命以來 夙夜憂嘆 恐託付不効 以傷先帝之明”.: 『中庸』, 「章句」20, 〈哀公問政〉, “朝聘以時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

봉래에 온 내 모습 그리네

畫我着蓬萊

전반부가 선위사의 사명감을 드러낸 것이라면 후반부는 모임의 흥취를 드러낸다. 그가 변방의 근심을 술잔에 흩어버리며 지친 심신을 낫 곳은 청해관과 몰운대이다. 다대포의 객사인 청해관은 다대첨절제사영에 속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객사이지만 1900년에 철거되었다.⁴⁶⁾ 또 몰운대는 부산의 등줄기인 금정산의 끝자락이 바다에 빠져들어 형성된 섬으로, 일찍이 정미통신사(1607)를 비롯해 사행원들이 빠짐없이 다녀갔던 명소였다. 계미통신사(1763)의 정사 조엄은 “작은 섬들이 아름답고 고와 마치 아름다운 여자가 꽃밭에서 화장하고 있는 것 같다.”⁴⁷⁾며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민구도 잔치가 열리는 몰운대가 무릉도원과 같다고 감탄하면서도 ‘이슬’과 ‘시든 오동’, ‘가을바람에 꺾인 흰 줄풀’ 등에서 문득 세월의 흐름을 깨닫는다. 사명을 다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 그가 부산에 머문 지도 어느덧 세 계절이 지난 것이다. 그나마 사명을 무사히 끝냈고, 며칠 후면 귀로에 오를 것이기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화가의 모델이 되어준다.

이처럼 『선위록』에는 왕이나 왕족, 관찰사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그 기록을 찾기 힘든 경상좌수사의 사냥 모습과 함께, 사행길에 나서는 순간부터 사행을 무사히 끝내고 상경을 앞둔 시점까지 선위사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잘 묘사되어 있다.

4) 스승과 벗에 대한 곡진한 인정의 표출

이민구의 『선위록』에는 沈喜壽(1548~1622)의 부고를 받고 동래에서 지은 <沈相國喜壽挽詞五十韻>이 수록되어 있다. 심희수는 자 伯懼, 호 一松·水雷累人이고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으로, 1591년 일본국왕사가 왔을 때 선위사

46) 그동안 다대포 객사로 알려져 있던 懷遠館(부산시 사하구 몰운대 1길 73 소재)은 2020년 7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多大鎮 東軒’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건물 현판도 ‘懷遠館’에서 ‘睡虎閣’으로 바뀌었다.

47) 조엄, 『海槎日記』1, 1763년 9월 3일, “蓋沒雲臺則羅前小島 窈窕佳麗 有若美貌女子 凝粧於花卉叢中”.

를 맡았을 정도로 외교와 施政에 관련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이민구는 첫머리에서 심희수를 5백 년 만에 한번 나올만한 재상으로 그가 이론 업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칭송한다. 이어 학문으로는 일을 할 때 늘 경서를 독송한 전한 시대의 兒寬, 이웃의 촛불 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匡衡과 같이 뛰어나고, 나라에 미친 공로로는 齊나라의 유명한 재상 管仲과 晏嬰에 못지않다고 평가한다.⁴⁸⁾

빛나는 집안과 먼 인척이 되어	華宗連末戚
아들처럼 두터운 사랑 받았는데	厚愛自諸兒
피곤함도 잊은 채 칭찬하며	獎飾偏忘倦
많은 가르침 베풀어 주셨네	朱鉛謨見施
가까이에 두어 가르치시고	提承存負劍
듣고도 모르면 알 때까지 하셨네	聽瑩到炊糜
다행히 과거에 이름을 올리니	屬幸題名忝
훌륭한 인재 얻었다고 떠받들어졌네	蒙將得士推

이민구가 나이가 41세나 많은 심희수와 인연을 밝히고 있는 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그에게 학문을 배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내가 어려서는 공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쓴 심희수의 문집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⁹⁾ 그런데 심희수와 인연은 일찍이 그 아버지 이수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심희수는 이수광을 “맑은 절조를 보전하여 비빈이 거처하는 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칭찬했고, 집을 방문해 준 이수광에게 시 〈謝芝峯見訪〉을 남기기도 했다.⁵⁰⁾ 하지만 보다 분명한 연결고리는 이수광이 심희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만사에 잘 나타난다. 이수광은 병으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함을 애석해하면서 그와 사간원에서 처음 친분을 맺었고, 15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詩社에서 망형지교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평

48) 『宣慰錄』, 〈沈相國喜壽挽詞五十韻〉, “公才當五百 相業不磷緇 學邁兒匡峻 功羞管晏卑”.

49) 이민구, 『東州集文集』 권2, 「序」, 〈一松沈相國文集序〉, “不佞幼受知于公”.

50) 이수광, 『芝峯集附錄』 권1, 〈行狀〉, “故相沈公喜壽嘗歎曰 保全清節 不爲宮掖知名者 唯芝峯有之云”. 『芝峯集』 권20, 「附錄」, 〈謝芝峯見訪〉, “同人時復惠然來 幽抱何妨徹底開”.

생의 지기”라고 밝히고 있다.⁵¹⁾

결국 이민구는 아버가 존경하는 선배에게 학문을 배운 셈이다. 편지 상자에는 지난달에 스승으로부터 온 편지가 남아 있고, 책상에는 작년에 보내 준 스승의 시도 그대로 놓여 있다. 그토록 자상했던 스승이 세상을 떠났으니 한 걸음에 문상을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지만, 사명을 받은 신하이기에 “소박한 제수조차 바칠 길이 없어 계속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無階奠鷄黍 有淚泣公私)”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한편, 이민구의 『선위록』에는 유배지에 있는 벗 許寮(1583~1625)이 보낸 시에 답한 〈酬許若虛巨濟謫所〉도 수록되어 있다. 허실은 자가 若虛로 許箴의 5남 3녀 중 장남인데, 1618년 숙부인 허균의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거제로 귀양을 와 있었다.

신기루와 인어의 집이랑 이웃하여	蜃樓鮫室結爲隣
구름 따라 물 따라 오래 시름하는 쫓겨난 신하	雲水長愁放逐臣
울무가 어찌 장독을 막을 수 있을까	蕙苾何曾堪禦瘴
풍파에 다시는 젖은 비늘 벗지 못하리	風波不復解霑鱗
단풍 숲 옛꿈은 초승달처럼 희미한데	楓林舊夢迷三夜
초나라 언덕엔 새 향기로 봄기운 꿈틀대니	楚岸新香動一春
강담에서 어부를 향해 묻노라	欲向江潭問漁父
몇 번이나 홀로 깨어 있는 사람 만났는고	幾回逢着獨醒人

이 시는 詩序가 적힌 두 수의 시 가운데 두 번째 시이다. 먼저 이민구는 ‘시서’에서 西晉의 시인인 張協의 〈七命〉에서 아름다운 수사를 빌리고, 천상의 음악에서 화음을 빌려와도 벗의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위로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시로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모 잃은 아들을 〈履霜操〉로 위로하고, 아홉 아들 둔 과부를 서글픈 거문고 소리로 기쁘게 하려는 꼴”이라며 안타까워한다.⁵²⁾ 〈이상조〉는 周나라 재상 尹吉甫의 아들 伯奇가

51) 이수광, 『芝峯集』 권5, 시, 오언배율, 〈沈相國挽詞三十韻〉, “諫垣初托契 詩社忝忘形…知己平生感”.

52) 『宣慰錄』, 〈酬許若虛巨濟謫所〉, “雖僕假妙辭于七命 徵和音於廣樂 亦無以解足下…慰孤子以

계모의 참소로 쫓겨난 것을 상심해 강물에 몸을 던져 죽기 전 마지막으로 탄 거문고 음악의 이름이다. 이어진 첫 번째 시에서는 벗이 그리워도 자신의 선위사 소임 때문에 거제까지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⁵³⁾

두 번째 시의 전반부에서는 後漢의 馬援이 交趾에 있을 때 울무를 상식하여 남방의 瘴氣를 이긴 고사를 끌고 와, 오히려 울무조차 瘴毒을 막을 수 없고, 풍파로 젖은 비늘도 벗을 수 없다며 벗이 처한 귀양지의 열악한 환경을 거론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초나라의 대부 굴원이 지은 〈어부사〉를 끌고 와 어부에게 “홀로 깨어 있는 사람(獨醒人)”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를 물어 벗 허실을 굴원에 빗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실로 대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벗인 허실을 굴원에 빗대는 순간, 광해군은 간악한 신하의 말만 듣고 굴원을 유배 보낸 초나라 경양왕으로 전락하고 만다. 벗의 억울한 상황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임금을 옥보인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니 충분히 시뻘거리가 될 만했다. 실제로 1583년에 이민구의 스승 심희수는 함경도 갑산에서 귀양살이하던 벗 허봉을 그리며 〈懷許荷谷錡謫居〉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시를 읽은 선조는 죄를 짓고 유배 간 신하를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심희수를 수찬에서 체직해버렸다.⁵⁴⁾ 그런데도 이민구는 허실의 둘째 동생 許宙(1585~1659)와 막역한 사이라는 이유로 허보의 유배지 벽진군에 바다를 건너 세 번이나 방문했다.⁵⁵⁾ 계

履霜 悅九寡以哀桐”.

53)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10, 「墓碣銘」, 〈處士東岡許公墓碣銘并序〉, “余於君少四歲 幼相狎 長相慕莫逆 君在島 余三涉鯨波以相見”.

54) 심희수, 『一松集』 권2, 〈懷許荷谷錡謫居〉; 채제공, 『樊巖先生集』 권46, 「神道碑」,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贈諡文貞公一松沈公神道碑銘神道碑銘〉, “云是許荷谷錡所鑿 公見物懷人 偶占一詩 上覽之以係戀罪謫臣 遞修撰”. 심희수에 대해서는 김남기, 「심희수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7집, 한국한시학회, 2002, 73~102쪽 참조.

55) 이민구, 『東州集 文集』 권10, 「墓碣銘」, 〈處士東岡許公墓碣銘并序〉, “余於君少四歲 幼相狎 長相慕莫逆 君在島 余三涉鯨波以相見”. 이민구는 〈許東岡祭文〉(『東州集 文集』 권4, 「祭文」)에서 허보가 어려서부터 62년을 함께 한 막역한 벗임을 강조했다. 이민구가 31세(1631)에 『東遊錄』을 남긴 26일간의 금강산 여행도 허보와 함께 떠난 여행이었다. 금강산 유람에 대해서는 오승준, 「동주 이민구의 한시 연구-금강산 유람시를 중심으로」(『한문학논집』 41집, 근역한문학회, 2015)를 참조.

다가 굳이 사행 기간 지었던 3백 편의 시문 가운데 이 시를 뽑아 수록한 것이다.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자신의 안위 따위는 염려하지 않는 그의 올곧은 성품과 스승과 벗에 대한 곡진한 인정을 엿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선위사 이민구의 『선위록(宣慰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위록』의 형성 배경을 살폈다. 『선위록』은 1622년 정월 일본국왕사가 조선에 왔을 때 선위사 이민구가 약 1년 동안 사행 활동을 하면서 지은 시문을 가려 뽑아 엮은 사행시문집이다. 이민구는 선위사로서 견문한 자기 경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명을 완수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선위록』을 엮었다.

둘째, 『선위록』의 서술 체제상의 특징을 살폈다. 『선위록』은 이민구의 문집인 『東州集』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총 27제 60수의 시로 구성되었다. 일본 국왕사와 주고받은 시가 없이 오로지 자작시만 수록하되, 하행길-도착지-상경길 등의 사행 노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집하였음을 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선위록』의 내용상 특징을 살폈다. 『선위록』은 선위사로서의 소명 의식과 노정에서의 감회 토로, 동래 지역의 풍광과 민간풍속의 반영, 경상좌수사의 사냥과 宣慰禩會의 광경 묘사, 스승과 벗에 대한 곡진한 인정의 표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처럼 이민구의 『선위록』은 선위사의 사행 체험을 제대로 반영한 사행시문집으로 사행문학의 영역 확대는 물론, 통신사와 함께 조선시대 대일 사행문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학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심희수, 『一松集』
이민구, 『東州集』
이소한, 『玄洲集』
이수광, 『芝峯集』
이제신, 『淸江先生鯀鱗瑣語』
이행, 『容齋集』
조엄, 『海槎日記』
채제공, 『樊巖先生集』
『邊例集要』, 『本草綱目』, 『增訂交隣誌』, 『通文館志』

2. 논저

- 김남기, 「심희수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7집, 한국한시학회, 2002.
김문식,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세창출판사, 2017.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_____,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김영주, 「동주 이민구의 문학론 연구」, 『동방한문학』 20집, 동방한문학회, 2001.
박경용, 「산청(山淸)지역 민간요법의 실재와 전승양상-의료생활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8호, 실천민속학회, 2011.
上村觀光 編, 『五山詩僧傳』, 東京民友社, 1912.
송혜영·서치상, 「경상좌수영 관아의 배치구성과 변화과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1권 7호, 2015.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양흥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0.

- 오승준, 「동주 이민구의 한시 연구-금강산 유람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 이성미·김정희, 『한국 회화사 용어집』, 다홍미디어, 2015.
- 임채명, 「조선전기 문인들의 일본국왕사 대응의 한 단면-李陸의 <送日本僧聖津首座還國詩序>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4집, 근역한문학회, 2006.
- 정경주, 『해운대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 古文書』, 해운대구청, 1994.
- 하우봉,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경인문화사, 2014.
- 한태문, 「조선후기 대일 사행문학의 실증적 연구-부산 영가대 해신제와 제문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1집, 동양한문학회, 1997.
- _____,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과 현황」, 『항도부산』 36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 허경진, 「통신사와 접반사의 창수 양상 비교」, 『조선통신사연구』 2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 홍성덕, 「조선후기 일본국왕사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집, 한일관계사학회, 1996.
- 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Abstract〉

A Study on Lee Min-koo's *Seonwirok*(宣慰錄)

Han, Tai-Moon

This thesis examines *Seonwirok*(宣慰錄) by Lee Min-koo, a Seonwisa-An envoy sent to entertain Japanese envoy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Seonwirok* was investigated. *Seonwirok* is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the envoys, selected from the poems written by Lee Min-gu of Seonwisa during his envoy activity for about a year when the envoy sent by the king of Japan came to Joseon in January 1622. Lee Min-koo wrote *Seonwirok* to spread his experience as a seonwisa to the world and to show the pride that he accomplished his mission.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system of *Seonwirok* were examined. *Seonwirok* is composed of 60 poems with the titles of 27 poems that decorate the first part of *Dongjujip*,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by Lee Min-koo. It can be seen from the title of the poem that only one's own poems were recorded without any poems exchanged with the envoy sent by the king of Japan, but they were edited sequentially according to the course of envoys and the passage of tim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eonwirok* were examined. *Seonwirok* is a description of the sense of calling as a Seonwisa, expressing feelings on the road, reflection of the landscape and folk customs of the Dongrae area, and the hunting and scenes of the Seonwigyehoe of Gyeongsangwasusa. It contains the expression of earnest acknowledgment of teachers and friends.

As such, Lee Min-koo's *Seonwirok* is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the envoys that properly reflect the experiences of the envoys of Seonwisa. *Seonwirok* is a valuable literary text that not only expands the

scope of literature related to the envoys, but also enables a more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envoys related to Japan in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the history of communication.

* Key Words: Lee Min-koo, Seonwisa, Seonwirok(宣慰錄), Envoy Sent by the King of Japan, Tongshinsa

· 논문투고일: 2022년 8월 31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4일 · 게재결정일: 2022년 11월 10일